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후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영암군,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총장로에서 재현

이색 거리 퍼레이드 광주시민들 눈길 끌어



영암군은 지난 23일 광주 총장로 일원에서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 개최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쳐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4월 4일부터 7일까지 펼쳐지는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된 이번 총장로 홍보 캠페인은 왕인박사의 행적 중 가장 상징적인 사실인 도일의 역사를 재현한 것으로,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 조정기 군의장,

아울러 영암의 대표 농특산물인 달마지쌀과 감말랭이 등을 전시하고 배포했으며, 특히 무화과 잼 등 영암군 농특산물 시식코너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영암군 농특산물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는 축제홍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시행했다.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하면 추첨을 통해 햄버거세트 교환권을 받을 수 있고 참여만 해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왕인행운권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입체를 문화관광과장은 이날 홍보 캠페인에서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에 영암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축제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서 열리며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등 관광객 중심의 세련된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은어가 노니는 탐진강' 치어 7만미 방류

탐진강 은어 고갈 막기 위해 '2019 장흥 은어 명품화' 추진



장흥군이 탐진강에 어린 은어 7만 마리를 방류했다.

22일 탐진강 장흥교 아래에서 열린 방류행사는 지역 초등학생 어촌

계원, 수산업경영인회, 군 해양구조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방류한 은어는 지난 12월 초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서 부화한 치어를 약 120일간 사육한 것으로, 체장은 8~10cm에 이른다.

장흥군은 탐진강 대표 어종인 은어가 고갈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19 장흥 은어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치어방류 행사도 은어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초등학생과 수산 관계자들은 미래 탐진강에 은어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기대하며,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가졌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머지않아 탐진강에서 은어가 마음껏 노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탐진강뿐만 아니라 돌방, 시내와 같은 기초 생태계를 되살리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송후빈 기자

진도군, 골목경제 활성화 위한 청년 점포 챌린지 슝 운영

내달 5일까지 공모 신청

진도군이 골목경제 재생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슝'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공동체 사업의 일원인 '청년 점포 챌린지 슝'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다.

특히 오는 7월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의 개장으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진도군 골목상권의 특색있는 음식과 체험거리 등을 접목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은 '청년 점포 챌린지 슝' 5개소 운영을 위해 진도를 남문로 상가 내 빈점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진도군 관내 주소지를 두고 만 19세이상 49세 이하인 자로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진도를 남문로 상가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하다. 단 유증,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금융·교육업 등 창업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 아이템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개성있고 상권 내 부족한 업종을 보강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

식과 체험거리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은 1차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면접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 마케팅 홍보와 경영컨설팅 등 자생역량 교육을 진행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입점일로부터 2년간 임대료 범위 안에서 최대 1,200만원 ▲인테리어 비용 50% 범위 안에서 최대 700만원 ▲창업 교육,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담양죽로차연구회, 과제교육 및 회의 개최

담양군 죽로차연구회(회장 최중순)는 고품질 죽로차 상품 생산과 6차 산업으로의 연계로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1일 과제교육과 회의를 개최했다.

죽로차연구회는 고품질의 죽로차를 담양만의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올리는 친환경 차잎 생산과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다법 교육 및 체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중순 회장이 차별화된 담양 죽로차(녹차, 홍차)의 제표화를 위한 과제발표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 구성과 명품차로 만들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 방제 당부

화순군이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배, 복숭아,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등록 약제를 제때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나무 한 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수 농장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현재는 주로 중북부 지방의 사과, 배 과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화순군 주요 과수인 복숭아, 지두, 매실도 발생 작물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과수 꽃피기, 새순 나오기 직전에 방제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은 약제 방제와 함께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가위, 예초기 등 작업 도구를 자주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군 농업기술센터(379-542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정미과 식물의 잎, 가지 등이 마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현상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영취산진달래축제' 개최

29일부터 3일간...산상음악회 등 볼거리·즐길 거리 다양



분홍빛 진달래를 한 가득 품은 여수 영취산에서 27번째 진달래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여수시는 제27회 여수영취산진달래체험행사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영취산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

혔다.

축제는 29일 시민과 관광객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부터 시작한다.

진달래 꽃길 시화전, 새집달기, 화전 부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도 알차게 준비돼 있다.

개막식은 30일 돌고개 행사장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시립국악단 공연, 개막 퍼포먼스, KBC 축하쇼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영취산 봉우재 산상음악회는 아름다운 진달래 꽃과 싱그러움 산물이 어우러져 감동과 여유를 선사한다.

31일은 초청가수·비보이 공연, 7080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축제 열기를 이어간다.

특히, 30일 웅천천수공원에 프린지 무대가 마련된다.

무대에서는 축제 현장을 찾은 어려운 시민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인기가수 태진아 공연, 색소폰 연주,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봄기운 가득한 영취산에서 많은 추억 쌓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